

두산중, 5.5MW급 해상풍력 국제인증

2년만에 국내 최대용량 상용화 성공
국산설비 확대, 수출역량 강화 기여

두산중공업이 5.5MW급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의 국내 첫 국제인증을 획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두산중공업은 풍력발전분야 국제인증기관인 'UL DEWI-OCC'로부터 5.56MW 해상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형식인증'을 국내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받았다고 1일 밝혔다. 5.5MW급 시스템은 국내 풍력발전 시장에서 가장 용량이 큰 모델이다.

형식인증은 설계 평가 및 각종 부품과 완제품 성능에 대한 시험 평가, 제조설비와 품질시스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거쳐서 결정한다.

두산중공업은 2017년 5.5MW급 풍력발전 기술을 확보한 뒤, 약 2년 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5.56MW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모델은 제주도 김녕실증 단지에서 현재 5년 가량의 운전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엔 일 최대순간풍속 역대 4위(56.5m/s)를 기록한 태풍 '차바'에도 정상가동돼 높은 안정성을 입증했다.

김성원 두산중공업 플랜트 EPC BG장은 "이번 인증은 국내 기술 주도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주 김녕실증단지에 설치된 두산중공업 5.5MW급 해상풍력시스템 전경.

"외국산이 절반 이상 점유 중인 국내 풍력시장에서 국산설비 확대에 기여하고, 해외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기원이 국책 과제로 추진하는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사업 주관 기관에 선정돼, 2022년 상용화 목표로 모델 설계 및 제작, 실증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탐라해상풍력(30MW), 서남해해상풍력(60MW) 등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236.5MW(78기, 2019년 6월 기준)에 이르는 공급 실적을 보유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30개 협력사 '에코 얼라이언스' 출범

반도체 환경문제 해결 나선다

협력사, 온실가스·폐기물 등
올 말까지 감축 목표치 수립

SK하이닉스, 컨설팅 등 지원
일회용 폐기물 제로 캠페인도

SK하이닉스가 협력사와 손잡고 반도체 업계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SK하이닉스는 1일 경기도 이천 에덴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에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30개 협력사가 동참했다.

'에코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별 환경경영 목표 설정 ▲에코 얼라이언스 공동 환경 목표 설정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위해 조직됐다.

협력사들은 올 말까지 기업별로 환경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목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와 폐수, 폐기물 등을 감축하는 목표치다.

SK하이닉스는 참여기업에 전문기관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일회용 폐기물 발생 제로 캠페인 등



SK하이닉스는 에코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다. /SK하이닉스

얼라이언스 공동 목표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공동활동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측정하고, 매년 컨퍼런스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에 성과와 계획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에코얼라이언스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반도체 제품 재사용 경험을 공유

하는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지속경영담당 신승국 전무는 출범식에서 "환경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지속경영 요소"라며 "지금은 30개 협력사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3차 협력사와 해외 협력사의 동참을 이끌어내 환경분야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KT, 4K 초고화질 '슈퍼VR' 출시

국내 5G 실감미디어 시장 선도
업계 첫 VR 월정액 요금제 선포

KT가 초고화질 가상현실(VR) 서비스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국내 대표 실감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T는 4K 초고화질 개인형 실감미디어 서비스 '슈퍼VR'을 지난달 28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기가라이브TV의 단말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해 '슈퍼VR'라는 이름으로 새로 선보였다.

슈퍼VR는 피코(PICO)의 G2 단말을 사용했다. 기존 기가라이브TV 대비 고성능 4K 올인원 단말을 사용했다. 아울러 렌즈를 개선해 눈부심 현상을 줄였으며, 안경 착용자를 위해 '글라스서포터'를 추가했다.

슈퍼VR는 국내 최대 1만여편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4K 초고화질 콘텐츠 450여편을 선보이고 스포츠, 슈팅, 공포, 리듬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 15종을 제공하는데 매월 2종씩 신규 게임을 추가할 계획이다. IMAX 영화관처럼 몰입감이 뛰어난 '와이드팩스' 상영관에서는 기존 245편의 전용 콘텐츠에 매월 10편의 최신영화를 업데이트한다. 올레 t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100여개의 실시간 채널과 18만여편의 주문형비디오(VOD)도 볼 수 있다.

KT는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바른손이엔에이의 관계사 바른손과 협력으로 '멀티엔딩 VR' 콘텐츠를 기획했다. VR 영화와 게임을 결합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서비스다.

이밖에 아프리카TV와 협력한 e스포



KT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단장이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최초 4K 무선 VR 서비스 'KT 슈퍼V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

츠 멀티뷰 중계,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와 협력한 VR 전용 스타 콘텐츠, 이너테인먼트와 협력해 만든 아이돌 VR팬미팅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민트팻과 협력한 VR 면접훈련 콘텐츠(면접의 신), 청담어학원과 협력한 VR 영어교육 콘텐츠, 헬로엠피와 협력한 VR 코딩교육 콘텐츠 등 신규 교육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KT는 업계 최초로 VR 월정액 요금제인 '슈퍼VR 패스'(월 8800원, 부가세 포함)를 내놓았다. KT 슈퍼VR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이 필요한데 KT는 가격을 17% 할인하고, 슈퍼VR 패스 6개월 이용권을 묶어 45만원에 단말을 판매한다.

슈퍼VR은 전국 KT 대리점 또는 KT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슈퍼V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00여곳의 KT 매장에 마련된 체험존에서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중, 상반기 임원인사 단행

정준철 부사장, 운영철 전무 승진

현대중공업그룹이 1일 상반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현대건설기계의 정준철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한국조선해양의 운영철 상무가 전무로, 현대중공업 강성희 부장 등 총 7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되었다.

정준철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영남

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건설기계 벨지움 법인장과 영업본부장을 거쳐 현재 중국사업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중국사업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운영철 전무는 1967년생으로 연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생산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인사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부사장, 운영철 한국조선해양 전무

로 한국조선해양에서 현대건설기계 신입 기술개발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양성운 기자

대우위니아그룹 "2025년까지 50대 그룹 진입"

'창립 20주년' 대우그룹 사명 변경
자동차 제조·가전부문 양 날개로
글로벌 그룹 도약 위한 비전 선포

대우위니아그룹이 공식 론칭했다.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재도약을 노린다.

대우그룹은 1일 대우에이텍 복지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사명을 대우위니아그룹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우위니아는 위니아딤채, 대우전자는 위니아대우, 대우위니아서비스와 대우전자서비스는 대우위니아서비스로 합병됐다.

대우위니아그룹은 1999년 자동차 시트 제조사인 대우에이텍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어, 20년 만에 매출액 4조원에 임직원 8000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날 행사는 대우에이텍 권의경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9명이 공로상과 대우미래상, 감사패를 받으며 시작했고,



대우위니아그룹은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선포하고 50대그룹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대우위니아

무빙샌드아트 퍼포먼스와 위니아딤채 김혁표 대표이사의 축하조형물 전달식과 위니아대우 안중구 대표이사 축사로 이어졌다.

대우위니아그룹은 '놀라운 도전으로 창조하는 미래'라는 새로운 비전도 선포했다. 2025년까지 국내 50대 그룹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임직원 9명이 공로상과 대우미래상, 감사패를 받으며 시작했고,

상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우 대우위니아그룹 회장은 20주년 기념사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탄생하는 대우위니아그룹은 자동차 제조부와 가전 부문이 양 날개가 되어 고객을 향한 힘찬 비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우위니아그룹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글로벌 그룹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 한층 더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용 기자